

국 어

1. 올바른 표준어 표기로만 묶인 것은?

- ① 설거지, 자장면, 초생달
- ② 등곶길, 삭월세, 무릎팍
- ③ 멍게, 바짓가래이, 반진고리
- ④ 찜뽕, 꼬깔모자, 떡만둣국
- ⑤ 최댓값, 귀이개, 우렁챙이

2. ㉠~㉣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 그는 설움에 (㉠) 울음을 터뜨렸다.
- 마을 이장이 소에게 (㉡) 꿈쩍을 못한다.
- 신에게 제물을 (㉢) 우리 마을의 안녕을 빌었다.
- 아가씨들이 양산을 (㉣) 들고 거리를 거닐고 있다.

	㉠	㉡	㉢	㉣
①	받쳐	받혀	바쳐	받쳐
②	받쳐	받쳐	바쳐	받혀
③	받쳐	받혀	바쳐	받혀
④	바쳐	받쳐	받혀	바쳐
⑤	바쳐	받혀	받쳐	바쳐

3. 문장 성분의 호응이 적절한 것은?

- ① 들에 핀 장미꽃이 여간 탐스럽다.
- ②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와 바람이 불었다.
- ③ 오해의 소지를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④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기도 하고 복종하기도 한다.
- ⑤ 건강을 위해서는 바른 식습관과 적당한 운동이 필요하다.

4. 다음 글의 ㉠이 동일한 단모음이 쓰인 단어끼리 묶인 것은?

단모음은 자음과는 달리 조음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 과정이 없다. 따라서 분류 기준도 자음과는 다르게 설정해야만 한다. 전통적으로는 혀의 최고점 위치와 입술 모양을 통해 단모음을 분류해 왔다. 이 중 혀의 최고점 위치는 전후 위치와 상하 높이로 세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과적으로 단모음은 혀의 전후 위치와 높이, ㉠입술 모양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대구, 제고
- ② 나름, 너울
- ③ 달빛, 더위
- ④ 가게, 기차
- ⑤ 고국, 우애

5. 밑줄 친 단어의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 ① 치아가 상실되면 브리지를 걸치거나 틀니를 시술하는 것이 전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 ② 지역 축제를 알리는 플랜카드가 나무와 나무 사이에 걸려 있다.
- ③ ○○협회는 최근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 ④ 이 지역은 메타세콰이어 길이 유명하다.
- ⑤ 총괄 감독은 이번 공연의 컨셉트를 ‘자유’라고 설명했다.

6.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이다. 이를 근거로 띄어쓰기를 바로 잡고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 [제42항]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3항]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 [제45항] 두 말을 이어 주거나 열거할 때 쓰이는 단어들은 띄어 쓴다.
- [제48항] 성과 이름, 성과 호 등을 붙여 쓰고, 이에 덧붙는 호칭어, 관직명 등은 띄어 쓴다.

교정	설명
① 집 밖에 누구도 없었다.	‘밖에’는 주로 부정하는 말과 어울려 쓰는 보조사이므로 [제41항]에 따라 앞말과 붙여 쓴다.
② 그가 떠난지 닷새가 지났다.	‘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로 쓰였으므로 [제42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③ 노래 한번 잘한다.	‘번’은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제42항]과 [제43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④ 사과하고 끝이면 충분해.	‘하고’는 두 말을 이어주는 단어이므로 [제45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⑤ 그의 성은 박씨이다.	‘씨’는 다른 사람을 부를 때 쓰는 호칭어이므로 [제48항]에 따라 앞말과 띄어 쓴다.

7. 문맥상 ㉠과 ㉡에 들어갈 한자성어로 옳은 것은?

- 덕이 아니라 힘으로써 사람을 따르게 하면 (㉠)하여
결과 달리 내심으로 배반하는 자가 생기게 마련이다.
- 그는 가늘지만 길게 (㉡)의 자세로 사는 것이 소시민의
처세 방법이라고 말한다.

㉠

㉡

- | | |
|--------------|------------|
| ① 면중복배(面從腹背) | 무골호인(無骨好人) |
| ② 면중복배(面從腹背) | 함포고복(含哺鼓腹) |
| ③ 교언영색(巧言令色) | 함포고복(含哺鼓腹) |
| ④ 백수북면(白首北面) | 무골호인(無骨好人) |
| ⑤ 교언영색(巧言令色) | 상산구어(上山求魚) |

8.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못되므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 앞을 걸었다.
저녁녘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 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으므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이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 김중삼,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

- ① 구체적 장소를 제시하여 현실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도치와 반복을 사용하여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일상적인 체험을 초월한 시인의 예술적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진실하고 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찬하고 있다.
- ⑤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9. ㉠~㉣을 활용하여 음운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음운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바뀌는 것을 음운 현상이라고 한다. 우리말의 음운 현상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 교체: 어떤 음운이 환경에 따라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 ㉡ 탈락: 본디의 음운이 사라지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 ㉢ 첨가: 본디 없었던 음운이 새로 더해지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 ㉣ 축약: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음운 현상을 말한다.

- ① ‘맑지[막찌]’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 ② ‘꽃잎[꼇닙]’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 ③ ‘잡혀[자퍼]’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 ④ ‘색연필[생년필]’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 ⑤ ‘굳히다[구치다]’에는 ㉠과 ㉣의 음운 현상이 일어난다.

10.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만약 누군가 자신은 공중 부양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고 하자.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할 수 없고 혼자 있을 때만 된다.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은 적어도 과학적이지는 않다. 보편적으로 재현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뉴턴의 중력이론에 따르면 지구 표면에서 모든 물체는 1초에 4.9미터 낙하한다. 이것은 지구상 모든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 하더라도 그러하다. 오늘 해 봐도, 내일 해 봐도 마찬가지다. 이런 의미에서 뉴턴의 이론은 과학적이다. 바로 이런 속성 때문에 과학이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론이 되었다고 믿는다. 요즘은 모두가 자신의 주장이 과학적이라 불리기를 바란다. 많은 학문 분야가 자신의 이름에 ‘과학’을 넣으려는 것도 비슷한 이유이다.

과학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요구는 예측 가능성과도 일맥상 통한다. 따라서 아무리 유명한 과학자의 이론이라도, 실험 결과가 예측한 것과 다르면 그의 이론은 폐기된다. 물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뉴턴이지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에서 그의 이론은 잘못된 예측을 내놓는다. 특허청에서 일하는 말단 직원이라도, 그의 이론이 재현 가능한 예측을 내놓는다면 그가 맞는 거다. 그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그래서인지 물리학자들은 권위주의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이론이 옳다면 재현 가능한 증거를 보이면 그만인 것이다. 증거가 불충분할 때는 모른다고 말하며 판단을 유보하는 것이 과학적인 자세이다.

- ① 과학은 보편적으로 재현 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학문이다.
- ② 모름을 인정하고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과학적인 자세로 볼 수 있다.
- ③ 뉴턴의 이론도 예측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폐기될 수 있다.
- ④ 혼자 있을 때만 성공하는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비과학적이므로 거짓이다.
- ⑤ 많은 학문 분야는 자신의 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11.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많은 생태학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자연을 위한 생태학은 은폐된 정치적 선택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태계에서의 공동선이란 인간의 대지인 지구를 번영케 하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왜 우리는 지구를 번영하게 해야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은 생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생태학은 매우 이기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이고 기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상 자연은 아주 종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등 재앙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떤 고차원적인 공동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은밀한 목적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가 자연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걸 참상입니다.”라고 말하고, 생태학자들은 “우리는 보다 자연적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숲 가까이에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독일의 한 생태학자는 이러한 경향이 생태학적으로는 완전한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 도시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의 오염 수준은 극도로 악화되지만, 일인당 오염 수준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역을 상대적으로 깨끗하게 남겨두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꼭 들어차서 생태적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진 대都市는 사실상 역설적으로 자연에게는 최선인 것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한 작은 자가 발전식 집에서 사는 생태적인 아이디어를 볼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한다면, 이러한 집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숲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생태학적 경향에 대한 저의 불신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최고선으로 제안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주의를 초월하여 그것을 향해 노력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특권들을 우리는 이미 은밀히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① 태양열 자가 발전식 주택을 늘릴수록 더 넓은 면적의 자연을 보존할 수 있다.
- ② 도시의 밀집도와 오염도가 높아지면 자연에는 더욱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③ 오늘날의 생태학은 인간의 이기주의와 무관하게 고차원적인 공동선을 실현하고 있다.
- ④ 자연을 위한 생태학은 모순적이게도 인간 중심적 태도와 비밀스러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 ⑤ 숲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태적 삶의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12.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쏜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피혼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아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안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

- 윤선도, 「견회요」 -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뜻을 강조하고 있다.
- ② ㉠은 아버이의 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③ 지은이가 유배되어 있을 때 지은 작품이다.
- ④ 자연물과 화자를 동일시한 표현이 나타나 있다.
- ⑤ ㉡을 통해 충과 효가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 ① 최근 독감 의심 환자의 1/2 가량은 신종 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 ② 자금 및 정보력을 가진 이들은 규제의 허점을 파고 들어 가는 시도를 한다.
- ③ 급격한 기상 변화로 중부 지방에 수십 년 만에 최대치의 눈이 쌓여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 ④ 태풍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8월 3일자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조정하였다.
- ⑤ 본사는 정보시스템 고도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인 바, 이 교육의 위탁 운영을 위한 계약 체결을 빨리 진행할 예정이다.

14.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찰은 과학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조지어 오키프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과학자들도 관찰력의 비결은 시간과 참을성에 있다고 믿었다. 곤충학자 카를 폰 프리슈는 자신의 관찰 능력이란 대단한 것은 아니고 단지 움직이지 않고 돌 틈에 몇 시간 동안 누운 채로 생물을 끈질기게 주시하는 힘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행인들이 무신경하게 못 보고 지나치는 순간, 세계는 참을성 많은 관찰자에게 그 놀라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다. 벌이 추는 춤을 언어로 보고 해독한 성과 역시 그가 가진 관찰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물 심리학자 콘리트 로렌츠는 동물들의 행동을 이해하려면 그 아름다움을 감식할 수 있는 미적 감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바로 이것이 참을성이라는 미덕을 선물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동물들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해 낼 때까지 끈질기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지질학자 너대니얼 셰일러는 학생 시절 한 가지 표본을 반복해서 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자꾸 보다 보니 눈에 잘 띄이지 않던 것들, 이를테면 물고기의 양쪽 비늘의 배열이 다르다는 것 등이 분명하게 보이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참을성 있게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찾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고생물학자 엘윈 시먼스는 화석을 찾아내는 진짜 기술은 빠르고 예리한 시각적 식별력에 있다고 말하는데, 이는 화석을 찾는 작업이 얼핏 보기에 무작위적이고 평범한 지형에서 질서를 찾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장구한 시간에 걸쳐 풍화된 돌들로 뒤덮인 이집트 사막에 이빨 화석 하나가 있다 한들 눈에 잘 띄이지 않는다. 그건 마치 책 한 권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를 책장을 훑히 넘기면서 찾는 일과 같다.”

열대 조류 전문가인 생물학자 채러드 다이아몬드는 현장 탐사 작업을 하려면 먼저 자신이 느낀 빠르고 작은 움직임이 새의 움직임인지 나뭇잎의 움직임인지를 분간하는 능력을 익혀야 한다고 말한다. 숲에서 새를 추적하건, 들판에서 곤충을 관찰하건, 암석층에서 화석을 찾아내건 간에 이런 날카로운 관찰력이 가장 중요하다.

- ① 참을성 있는 관찰은 과학적 성과의 충분조건이다.
- ②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과학적 해석까지 도출해 낼 수 없다.
- ③ 목적을 가진 관찰이 과학적인 통찰로 이어질 수 있다.
- ④ 과학자에게는 예리한 시각적 식별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
- ⑤ 채러드 다이아몬드는 현장 탐사 작업 시 자신의 감각적 경험을 활용한다.

15.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상에 발을 들인 첫 순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공감한다. 동떨어진 섬과 같은 아기는 없다. 신생아들조차 다른 사람의 표정에 반응한다. 실험자가 아기에게 혀를 내밀어 보이면 아기는 그를 흉내 내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 아기는 태어나 거울을 본 적이 없기에, 어른의 혀가 자기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기 입속의 그것에 대응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틀림없다.

아기들은 타인의 고통에도 반응한다. 어린 윌리엄 다윈이 생후 6개월 때 유모가 우는 척하자 ‘우울한 표정’을 지으며 ‘동정심’을 보였던 일을 기억하는가?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아도 우는 소리는 아기에게 불쾌하다. 그래서 그 소리에 아기들도 대체로 따라 울게 된다. 소음에 대해 말로 표현할 줄 몰라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아기들은 자기 울음소리보다 다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더 많이 운다. 반면, 볼륨은 같더라도 컴퓨터로 생성된 소음을 들을 때나 새끼 침팬지의 울음을 들을 때는 그만큼 울지 않는다.

다른 생명체들도 같은 종의 구성원이 괴로워하면 불쾌감을 느낀다. 배고픈 히말라야원숭이는 음식을 손에 넣기 위해 레버를 당겼을 때 다른 원숭이가 전기 충격을 받는다면 그 레버를 당기지 않으려 든다. 쥐는 공중에 매달린 다른 쥐를 내려주거나 물이 채워진 수조에 갇힌 쥐를 풀어주기 위해 막대를 누른다. 그리고 원숭이와 마찬가지로 음식을 제공해 주는 막대를 눌렀을 때 다른 쥐가 충격을 받으면 그 막대를 누르는 행동을 멈춘다.

- ① 신생아는 갓 태어났으므로 아직 다른 사람과 공감하지 못한다.
- ② 아기들은 의식적 인지를 통해 주변 어른들의 행동에 반응한다.
- ③ 아기와 달리 쥐는 동족의 괴로움에 공감하지 못한다.
- ④ 동족의 고통에 공감하는 정도는 히말라야원숭이가 쥐보다 더 크다.
- ⑤ 아기는 사람의 소리보다 다른 생명체의 소리에 덜 반응한다.

16. 다음 글과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는 것은?

십년(十年)을 경영(經營)하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어 내니
나 혼 간 돌 혼 간에 청풍(淸風) 혼 간 맞져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띠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순, 「십년을 경영하여」 -

- ① 산은/ 구강산(九江山)/ 보랏빛 석산(石山)// 산도화/ 두어 송이/
송이 버는데// 봄눈 녹아 흐르는/ 옥 같은/ 물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 박목월, 「산도화」 -

- ②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윤동주, 「서시」 -

- ③ 구름이 꼬인다 갈 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익결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왜 사냐건/ 웃지요

- 김상용, 「남으로 창을 내겠소」 -

- ④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 산평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건만// 마음은 제 고향 지니지 않고/ 머언
항구(港口)로 떠도는 구름.

- 정지용, 「고향」 -

- ⑤ 사랑한다는 말 이 한마디는/ 내 이 세상 온전히 떠난 뒤에 남을 것
// 잊어버린다. 못 잊어 차라리 병이 되어도/ 아 얼마나한 위로이라
/ 그대 맑은 눈을 들어 나를 보느니

- 조지훈, 「민들레꽃」 -

17.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말이 있다. 그리스어에서 온 말로 ‘분산’, ‘이산’, ‘흩어진 사람들’을 뜻한다. 전에는 ‘팔레스타인 밖
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요즘은 ‘전쟁이
나 식민지화 등으로 인해 고국을 등져야 했던 백성과 그 후손
들의 총칭’으로 의미가 확장되어 쓰이고 있다. 우리 민족의 경
우에도 이른바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해외 동포들이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 근·현대사의 고통스러웠던 전개
과정에서 원치 않게 중국이나 일본, 러시아 등지로 떠나야 했
던 이들과 그 후손을 들 수 있다.

어떤 공동체에는 언어 사용의 문제는 그 공동체의 정체성과
맞물려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디아스포라’의 경
우에는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다. 일찍이 해외의 우리 동포들은
공동체 내부에서는 한국어를 사용하고, 공식적이고 대외적인
차원에서는 한국어가 아닌 그 나라 말을 사용해야 하는 다중
언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주 1세대
들의 수가 점점 줄어드는 상황, 그리고 생존을 위해 현지의 언
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해외에
거주하는 한민족 공동체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전체적으로 낮
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면서 정서와 감정, 문화와 사상을
담는 그릇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다중 언어
사회의 언어 문제는 빠른 속도로 다문화 사회가 된 우리 사회
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 되었다. 따라서 국제결혼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에 온 많은 외국인들이 맞닥뜨린 다중
언어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모두가 한 공동
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려
는 태도가 필요하다.

- ①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을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다.
② 공동체의 정체성 형성에는 언어 사용의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③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④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언어 교육을 한국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⑤ 이주 노동자가 한국에서 겪는 언어 사용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

18. (가)~(마)를 문맥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영역 수호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현상 중 하나는 몇 주간에 걸친 세미나나 교육 과정에서 벌어지는 좌석을 둘러싼 신경전이다. 평생교육원이 주최하는 ‘코바늘뜨기 고급반 과정’의 첫날, 몇몇 수강생은 작심한 듯 눈에 불을 켜고 강의실에 들어오고, 다른 몇몇은 약간 쑥스러워하며 들어온다.

(가) 그냥 어떤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 무리에 속하는지 여부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지칭되는 명칭이 치환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 위상이 애매해진다. 텔레비전의 토크쇼를 보더라도 개성 있는 패널들로 채워지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제작진의 세심한 의도 아래 구성된 것이다.

(나) 일주일의 지나 수강 둘째 날이 왔다. 수강생들의 움직임은 확연히 빨라졌다. 강의실에 입장하자마자 일주일 전에 앉았던 바로 그 자리를 향해 총총걸음으로 돌진한다. 이름표가 붙은 책상을 찾아가는 것보다 더 신속정확하다. 배려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간혹 이렇게 묻기도 한다. “헛갈려서 그러는데요, 저번 주에 이 자리가 제 자리였나요?” 사실 코바늘뜨기 과정에서 누가 어디 앉든 무슨 문제가 될까?

(다) 이제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행동이 굼뜨거나 소심한 수강생들은 남아 있는 자리에 그냥 앉는 경우가 많다. 착석하자마자 어깨에서 벗겨진 외투는 의자에 입혀진다. 이 자리에 입자 있다는 표시다. 여성들은 의자 한쪽에 핸드백을 걸어 놓기도 한다.

(라) 인간은 낯선 사물, 낯선 사람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친숙해지고 싶어 한다. 위의 경우에는 새로운 강의실과 수강생들이 될 것이다. 조직심리학을 연구하는 외르크 펠페에 따르면, 인간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어느 무리에서든 최대한 신속하게 자기 자리를 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마) 그런데 여기서 모순에 부딪힌다. 무리의 소속감을 원하는 마음과 개인으로서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강의에 참여한 수강생들은 첫날 앉았던 자리를 차지하려는 동기가 생긴다. 즉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맨 앞줄 환등기 오른쪽에 앉은 사람’ 또는 ‘창가 맨 뒷줄 남자’로 차별화되어 각인되고 싶어 한다.

- ① (가) - (마) - (나) - (다) - (라)
- ② (다) - (나) - (라) - (마) - (가)
- ③ (다) - (라) - (나) - (마) - (가)
- ④ (라) - (나) - (다) - (마) - (가)
- ⑤ (라) - (나) - (마) - (다) - (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9.~문20.]

윤리적 소비란 소비자가 개별적,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인간, 사회,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소비 행동이다. 소비자가 소비를 할 때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소비가 이웃, 사회, 환경 등 더 넓은 범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나아가 윤리적 소비는 구매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일상생활 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간소한 삶을 지향하며 절제하고 나누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인간, 사회,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구현하는 소비 실천 행동을 의미한다.

최근 산업화 이후 경쟁적인 경제 발전으로 인해 지구의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의 문제가 등장함에 따라 지속 가능 발전이 전 세계가 달성해야 하는 인류 공통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의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윤리적 소비는 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윤리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지구 환경의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소비 실천 행동이므로, 윤리적인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은 생산·유통 과정에서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윤리적 소비는 현대 소비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적인 소비 행동으로 환경오염, 빈부 격차, 삶에 대한 불만족 등의 현대 소비 사회의 주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소비 행동이며,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비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구환경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실천 행동이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윤리적 소비자는 다양한 실천 행동을 통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기업을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비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운동을 하여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 밑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으로 옳은 것은?

- ① 윤리적 소비를 확산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가?
- ② 윤리적 소비는 어떠한 사회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시작되었는가?
- ③ 산업화 이후 지구 환경에 나타난 변화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 ④ 윤리적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⑤ 특정한 기업의 성장 전략이 소비자에게 어떠한 도덕적인 책임을 요구하는가?

20.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윤리적 소비자는 자신의 소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를 결정한다.
- ② 윤리적 소비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친 소비 행위에서 절제와 나눔을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다.
- ③ 윤리적 소비는 개인의 도덕적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와 환경에 책임을 다하려는 소비 행동이다.
- ④ 윤리적 소비는 환경오염이나 빈부 격차 등 현대 소비 사회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⑤ 윤리적 경영 여부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다.